

#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3대 난제로 표류

황해교류역사관(이하 황해역사관) 건립이 '콘텐츠 확보, 운영 주체, 규모' 등 3대 난제를 만나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남도와 목포시가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해역사관 건립 사업은 2017-2020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한·중 문화교류 관련 전시시설물을 제작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부지면적 8192㎡에 지상 3층(연면적 1400㎡)규모로 소요 사업비는 98억원(국비 50%, 도비 50%)이다.

당초 황해역사관은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 재직시절인 2016년 5월 도내 산재된 중국과의 역사적 교류관계 집약 전시를 통해 대 중국교류와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시관 건립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했다.

2016년 12월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진행됐고, 지난해 3월 갖바위 근린공원 내로 건립 부지가 결정된 데 이어 같은 해 8월 건립사업 주체가 전남도에서 목포시로 이관됐다.

이후 목포시 공유재산 심의와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자 심사를 거쳐 목포시는 올해 5월 전시 콘텐츠 확보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건립사업이 전남도에서 목포시로 이관되면서 역사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문제가 불거졌다. 운영비로 매년 5억6000만

콘텐츠 확보·운영비 분담·규모 놓고 전남도·목포시 이견 중국 교류·관광객 유치 위해 추진...상생의 해법 찾아야



갖바위 근린공원 내 목포문화관 인근 황해교류역사관이 들어설 예정부지. 예산 38억을 확보해 놓고도 콘텐츠 부족, 운영비 분담, 규모 등을 둘러싸고 전남도와 목포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원이 소요 될 것으로 목포시는 내다봤다. 이에 시는 전남도에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고 건립사업을 전남도로 재 이관을 건의한 결과, 운영비 분담은 검토해보겠지만 재이관은 불가하다는 전남도의 입장만 전달 받았다.

또 준비 기획단도 황해역사관은 전남도와 중국과의 인연지 및 인물 등이 배경으로 전남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다.

준비 기획단은 현재 콘텐츠 확보 연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콘텐츠 확보가 어려울 시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위치변경을 검토하고, 운영비 미분담 시 도시사역점사업입을 감안해 사업 주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목포시는 "황해역사관의 성공 유무는 건축물 보다는 내부에 전시된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도내에 산재된 관련 유물을 확

보하는 데 목포시보다는 전남도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또 "역사관 건립 추진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계약 심사, 건설 기술심의, 경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전남도가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황해역사관 규모도 논란의 대상이다. 당초 사업비가 200억에서 97억으로 감소되면서 시설규모도 1400㎡로 줄었다. 현재 목포시가 운영 중인 자연사 박물관(9177㎡), 생활도자 박물관(2094㎡), 어린이 바다과학관(3515㎡)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어 경쟁력이 없다는 게 목포시의 판단이다.

게다가 97억 가운데 2017년 8억과 2018년 30억 등 38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지만 콘텐츠 확보, 운영비 분담, 규모 등을 놓고 전남도와 목포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귀선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 "전남도에서 역사관을 건립한 이후 목포시로 이관하고 연간 운영비도 목포시의 재정입박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분담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전남도와 목포시가 머리를 맞대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기삼현 현대중공업 사장과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회장 등 관계자들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씨월드고속훼리, 현대미포조선과

### 2만7000톤급 크루즈형 카페리 건조 계약

씨월드고속훼리는 최근 현대미포조선과 대형카페리선 신조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씨월드고속훼리(주)는 목포-제주 기점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회사로, 올해부터 국내 최대 고품격 유럽형 크루즈 카페리선 '퀵메리호'와 전천후 Ro-Ro 화물선 '씨월드마린호'를 신규 취항하고 야간 건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부터 국내 굴지의 대형조선소 3개 업체의 치열한 수주경쟁을 거쳐 현대미포조선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건조할 대형 여객선 카페리는 총톤수 2만7000t,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의 제원을 가지고 있다. 최대 1300여명의 승객과 자동화물 12대, 승용차 약 100대를 동시에 싣고 최고 23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선체 내부에는 470개의 객실과 함께 유럽형 크루즈급 인테리어를 적용한 라운지, 아이 테라스, 극장, 게임방, 노래방, 마사지사, 어린이용 놀이방, 레스토랑, 제과점, 커피숍, 편의점 등 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위락 및 편의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또 침수나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승객과 화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위성항법장치를 비롯하여 화재자동경보기, 스포일러 등 다양한 안전설비와 함께 1300명의 인원을 30분 내 비상탈출시킬 수 있는 해상탈출설비 4기와 100인승 구명벌 13척 등 다양한 구명장비도 완비된다.

또 이 선박은 저중량, 저중심 및 고효율 선형으로 해상 운항 시 복원성(Stability)을 높이면서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건조될 계획이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이번 건조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국내 제주항로 시장의 선점효과를 토대로 제주기점 업계 수송률 1위 선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5일 개막 목포항구축제 신규 프로그램 5선...즐길거리 풍성하네



남만 정원 카페에 들어설 보름달, 등대, 요트 모형 조형물. (왼쪽부터)



멋과 맛, 남만으로 가득찬 목포항구축제가 '신명나는 파시 한 판'이라는 주제로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남만 정원 카페와 목포항 남만열차, 파시 수랏간 '회터와 구이터'를 새롭게 선보이고 로봇 물고기와 목포 청춘창업 1897 체험을 통해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방침이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신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먼저 본다. ◇ 남만 정원 카페=항구축제가 펼쳐지

는 주 무대 앞에 대형 조형물을 활용한 남만 정원 카페가 조성된다.

항구를 상징하는 등대, 보트, 고래, 보름달 등 대형 조형물 4개가 설치돼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축제 기간 동안 특정 시간대별로 목포 대표 특산품인 '감'과 맥주를 1세트로 구성해 매일 650여명에게 제공한다.

◇ 목포항 남만열차=열차를 이용해 목포의 아름다운 사계절 모습과 예향 목포에 걸 맞는 문화·예술·콘텐츠를 객차마다 연출하는 일종의 전시관이다.

'예향의 도시' 객차에는 목포출신 작가가 소개되고 청춘창업과 연계해 책 전시 등이 진행된다.

'해양의 도시'는 바다를 상징하는 트릭아트로 벽면을 장식하고 바다와 관련된 각종 직업을 소개한다.

또 7080시대 영화 포스터와 열피판 등 오래 장식된 '역사의 도시' 객차에선 음악 다방이 조성돼 목포 출신 가수들의 노래를 들려준다.

◇ 파시 수랏간 '회터와 구이터'=항구축제의 길러콘텐츠로 유명한 '파시'는 올해

더욱 새롭고 다채롭게 꾸며진다.

항구축제 최초로 심상한 활어를 경매하고, 어생 그랜드 세일을 통해 구입한 생선을 파시 수랏간의 회 터와 구이 터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어생 그랜드 세일 직전 관광객 모객을 위해 '넌버블 파시 퍼포먼스'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마당놀이인 '뽕배전', '뽕바 뽕바'도 펼쳐진다.

◇ 로봇 물고기 체험=평창 올림픽 당시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이 수족관 내에 있는 LED 등 발광체가 장착된 로봇 물고기를 직접 조정해보는 체험코너다.

1회 운영시간은 1시간이며 총 6대가 운영된다.

◇ 목포 청춘창업 1897 체험=목포 청춘창업 단체와 함께 펼치는 대표적인 체험 행사다.

3D 피규어 만들기, 목화등 만들기, 천일염 입욕제 만들기, 드론 축구, 장갑 인형 만들기,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하다.

이번 축제와 관련 김중식 목포시장은 "멋과 맛, 남만으로 가득찬 목포항구축제는 신명나는 파시 한 판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 헤인여고, 삼성 지원 '스마트 스쿨' 선정

목포 헤인여고(교장 조영현)가 도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삼성이 지원하는 '스마트 스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헤인여고에 갤럭시 탭과 전자칠판, 무선 네트워크 등 첨단 교실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연수와 교육용 앱을 개발해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스쿨은 삼성전자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바탕으로 첨단 IT 중심의 교실로 바꾸는 프로젝트다.

태블릿PC '갤럭시 노트'를 교과서처럼 활용하고 전자칠판·무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업이 이뤄지며, 학생들이 태블릿PC와 전자칠판을 통해 스스로 검색하고 만들어가는 활동도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 있는 수업 관련 자료를 손쉽게 불러올 수 있고, 수업에 필요한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선명한 UHD 화질로 보여줄 수 있어 학생들의 수업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 스쿨이 시연되면 수학 시간에 통계 단원의 복잡한 표나 그래프를 이용할 때 교과서 디지털 파일을 직접 불러와 화면에 띄울 수 있고, 통계청 등 다양한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최신 통계 동향과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공유하는 등 생동감 있는 교육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0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07 12 point

1 3 0 7 5 8 4 9 2  
106 10 point

2 4 6 3 7 1 2 8 0  
105 8 point

4 6 2 8 1 0 9 7 3  
103 6 point

0 7 6 2 1 4 9 9 2  
102 5 point

0 3 7 7 9 9 9 2  
101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